

海南花源千氏家承序

吾家舊譜不備文獻無詳舊以開城爲鄉貫矣中古百年內外間環我國以千爲姓人舉戴花山君爲始祖同譜續派改正鄉貫一以潁陽而或有明知非花山君系出慕其華胄欲侈其閥而從者焉或有朦昧其統緒疑信間從者焉甚無謂也蓋書籍味爽疑信而從者猶或原之明知非祖而認祖那免換祖之罪乎惟吾海南花源千氏不肖九代祖以上典籍失傳以下稍具者只是承繼昭穆而已初無遠祖遺蹟之可攷想其龍蛇之後零替仳離遺失殆盡故也蓋先人之趨向於潁陽同譜似是疑信而從者也然恒未釋然芥滯于中第以史記年代叅攷家承則大有相違明知鄉貫之錯誤然開城始

海南在源三日世壽
祖亦無攷蹟以是而仍從穎陽思到于此不覺失聲呼痛惟我子孫務增思
慮廣攷旁搜則庶有正謬之日也

隆熙四年庚戌正月既望

不肖孫 鐘宜謹識

海南花源千氏世譜序

夫生於世者孰非人子既爲子則必有父有父則必有祖祖而曾曾而高至于始祖系源統緒脉絡井井自有不可亂之理存焉此即天敘天秩之本然也然世代之沿革人事之興替滄桑頻幻典籍間斷於遺失昭穆眩亂於朦昧以至難稽則爲其雲仍者當若之何若夫恥其門楣之殘零強附遙々之華胄不分倫序捏空攀虛至於祖其非祖宗其非宗此不可以黷昧然疑恕原其情也然則不幸而處此者當守其實傳而不敢妄加毫釐於作爲自陷於亂倫之科矣謹按吾家世系文獻未足以徵之自不肖十一代祖以上初無載錄以下則僅有繼代名諱生辰忌日墓所配氏等紀蹟而已亦無遺世

事實之傳焉追本感遠曷云其極然徒歎而已則又安知來裔之無憑於今日所見聞復莫甚今日之難稽於先代也哉慨然志斯尋閱各宗第之舊籍訪聞故鄉老之傳言且述望浦丈

從曾祖
諱八圭

之面授叅證有年敢忘固陋於是謹

考十一代祖以下實記及傳聞實行從實載錄又蒐輯宗支見今名字生年分行列書無漏備載俾爲吾族戶藏而人曉其於冒貫尋源之正謬別爲難疑如左以待後之博考云爾

萬曆辛丑之後三百二十一年辛酉孟春乙巳不肖正翊書

序文分解

夫生於世者 誰 사람의 자식이 아니오 만은 이 무 자식이 되다 하면 반다시
父잇고 父잇으면 반다시 祖잇고 祖요 曾祖며 高祖로 始祖에 이르러 系
源과 統緒와 脉絡이 惝々 하야 스스로 可히 어지럽게 못할 이치가 있어서
存하였시니 이는 天敍와 天秩의 근본이 그러함이라 그러나 世代之 줄
고 곳침과 人事의 흥하고 폐체함이 자조 받기여 典籍이 遺失한대 끈어지
고 昭穆이 朦昧한대 어지러 써 상고하기 어려운대 이른즉 그 後孫된者 맛
당이 엇더 타 하리요 만일 대개 그 門楣의 殘弱하고 零替함을 붓그려 하야
강연히 멀고 먼 華族의 계 붓치여 倫序를 分別치 못하고 空虛한대 을 더우

잡어 그祖안임을祖라하고 그宗안임을宗이라 하리니 이는可히어둡으
로써 그러함이안이라 정히 그情을 미려용서함이라 그런즉 不幸하여 이
에處한者맛당이 그실상전함으로 직키여 敢히 망령되이 毫里를 作爲한
대더하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亂倫의 우물에 빠질이라 삼가 이 吾家의 世
系을 안찰하여 보니 文獻이 不明하여 足히 써 증거치 못할지라 不肖의 十
一代以上으로는 처음부터 기록한 것이 없고 以下로는 경우 系代와 名諱
와 生辰과 忌日과 墓所와 配氏라는 記蹟만 있을 뿐이요 또한 世上에 지춘
事實의 傳함이 없었으니 根本을 따라 멀물있김이엇지 그 極하다 하리요
그러나 한갓 탄식뿐이라 또 한곳엇지 來裔의 今日에 빙거업시 보고든는

바가닷시今日의先代에상고하기에런것보단심함이업슬줄을알니요
개연이탄복하고이에뜻을정하여各宗의집에舊籍을차자閱覽하고故
郷老人의傳하신말씀을차자드르며또한望浦丈의面對하여傳하여주
심을기술하여叅證함이여러해라敢이고루함을있고이에삼가이十一
代祖以下實記와밋傳하여드른實記을상고하여실상을從하여야기록하
여실고또한宗支의現今名字와生年과分行列書を모두와시여남이없
이갓추어記載하여야하요금吾族의戶藏을삼게하고사람이그冒貫과尋
源의바루고틀림을계우게할진댄별로難疑文을左와같이만드라써後
世의넬리상고하는니를기다리노라

海南桃源千氏世譜序文分解

무릇우리人類의歷史는 흔히들戰爭의歷史라고도한다東西古今을莫論하고
長久한時間과空間속에서 끈임없는戰亂을通해恨없는流浪과離合集散의連
續속에서興亡盛衰를反覆해왔다

이렇듯우리先代도變遷하는歷史의隊列속에서流浪했을것이고다만그어느
時代어떠한歷程으로이桃源이라는山間僻地에定着하게되었는지는不幸하
게도알길이없다

按컨대近者에京鄉의同宗들이我姓千氏의大同譜를編刊함에있어思庵公千
萬里의後系처럼編述한것은同宗으로서先代의歷績을詳考할길이없는共通
된悲哀를禁할바없으나默過할수없는誤謬를犯하였음을指摘하지않을수없
다

그러기에일직我門家承을編著하신不肖再堂叔芝村諱正翊公은그表紙에「海
南桃源千氏世譜」라고分明히하셨고不肖從曾祖惺巖諱鍾宜公은同家承序文

에서「非祖而認祖那免換祖之罪乎」라하셨다

이어芝村丈은同家承序文末尾에「人曉其於冒貫尋源之正謬別爲難疑如左以待後之博考云爾」即「사람이그冒貫과尋源의바르고그름을계우게할진대별도難疑文을作成하야後世의넉리祥考하는이를기다리노라」하시고難疑文에서思庵公千萬里의後系아님을明白히舉論하셨다

이어不肖再堂叔竹軒諱正喆公은그分行列書에서

「若無一丈之先功」이면이라하시고(惺巖丈芝村丈을稱함)두어른의秋霜같은遺跡을欽慕하시고이어(然이나世有不期多하고人有如意少하니平素에無有所備則臨難에多有弊端이曷有其極가於噫哉라斗入之地居族으로文眼이不明하고財源이淺薄하야未得高聘而華弁云云)이라하셨다

嗚呼라붓끝이여기에미치메옷깃을여미고한줄기의눈물을禁할길이없고나 이제금我門家承重刊에즈음하여도리켜回想하건대不肖宗孫十二歲項에祖父(諱秋字基)의教示로舍廊에서手筆로家承을騰하든記憶이엇그젠듯새로우

며 그後于今三十年前己丑년에 비로소 門中의 精誠으로 初版發刊時는 不肖年
少하야 見聞이 적고 木浦居住時라 그 校正에 任한 바 있었다

그後 不肖官職을 辭하고 轉轉八道하다 보니 때로는 京鄉各地에 散居한 同宗에
接하고 때로는 史學에 能한 이를 對하면 「池千秋三姓은 不入場中」이라는 世傳
의 由來를 問議하기 數十次라 이제 그 見聞을 綜合하고 曾者에 羅州南平鐵川瑞
下徐一夫先生을 進拜時에 先生曰 「往年에 偶然한 機會있어 「高麗王朝忠孝科
宦錄」을 閱覽한 바 貴姓千氏는 高麗王朝忠孝喬木之巨姓으로 科宦이 綿綿(벼
슬이 끊어지지 않는 뜻)하고 爲忠孝之家門이라 然而高麗末恭愍王代에 李成
桂(李太祖)의 謀逆으로 改王後(옥쇄를 바 꾸었다는 뜻)池千秋三姓은 斷然不
忠에 抗拒하야 그後 不嗜科宦하고 (벼슬을 조아 하지 않는다는 뜻) 一 절 科舉場
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緣由하야 世傳하기를 「池千秋」三姓은 不入場中」이
라 敎示한 바 있었다

삼가 按察하건대 如上의 史實을 論理的으로 首肯이 잦다

우리先代는不義不忠을排擊하고道를所重하는儒人였음이分明하다고思料된다하나의例로當代의史學者湖岩文一平先生의著書「湖岩全集」을보면그內容에「平民詩人千壽慶」이라는題目의史實이있다

「千壽慶」이라는분은宣祖때의사람으로漢城南山麓近處에살았는데堂號를松石園이라하고그膝下에四兄弟를두었는데長子는「松」이라하고次子를「石」이라불렀는데셋째아들이태어나자足이라불렀다(滿足하다는뜻)넷째아들이태어나자이어찌된일이냐고「何」라불렀다는것이다奇人이었다不幸하게도遺作을閱覽할바없음을哀惜하는바大自然을驅歌하고世俗과不忠을諷刺한遺詩가 많었다는것이다

여기에서도不忠에抗拒하고「不入場中」隱居한面貌를窺知할수있다
卑近한例로우리近親으로보자

不肖從高祖望浦丈(馬山里)은千周易이라는別號가있는분이요從曾祖惺巖丈亦儒學者였다再堂叔芝村丈은碩學이요詩人이었다遺作도數千首에達하

거니와(己亥年에嗣子從兄乙鳳氏의致誠으로「芝村遺稿」를發刊하였음)人
字百二十字을넣어서지은百二十人詩며花字百字를넣어서지은百花詩慨嘆
과咀呪로點綴되었으며自然를驅歌하고世俗을諷刺한遺作이豊富하다
또한再堂叔竹軒丈亦儒學者였다다만不幸하게도花源이라는僻地에서靑雲
을품어본바없이恨만은生涯들을마치셨다

當代로보자東亞曰報主筆을지낸바있는言論人이요當代의史學者인千寬字
先生은忠北堤川人으로그집안亦是儒學者의家系였다

如上論舉한바와같이우리先代는麗末朝廷에直言하고不義不忠과野合하지
않는文官이였음은理論的으로想定하기에어려운일이아니다謀逆不忠의武
勢와野合하지않았던우리先代가迫害를堪當할수없어安息處를찾아서流浪
하였을것도그리推理하기에어려운일이아니다

我姓千氏가迫害를避하기위하여「扇于」라는姓으로變姓하였다는것도如斯
한史的緣由에서였을것이다

붓을여기에서멈추자

如斯한歷程에서그文弱한우리先代가오직忠義를爲하여荆棘의갈을擇하없
다는것도自明한일이요또한어찌그想像할수없는苦難의歷程에서世系를不
亂하게傳할수있었겠는가

設使數代의世系를失傳하였다하여이를羞恥롭게워일것까지는없고모름지
기스스로荆棘의갈을擇하였을지언정不義不忠의武勢에野合하지않았던先
代의슬기로은壯舉를追慕하고池千秋三姓은「不入場中」이라는歷史的史實
을矜持로삼아야할것을銘心하면서結尾하는바이다

丙辰 一九七六年 六月

於光州旅舍 不肖宗孫

野隱堂后人 苔邨 初玉謹識

海東朝鮮國全羅道海南縣花源千氏世譜

隆輝

壽希

墓在二道 今山二面三
公山

子有生

宣祖三十四年 萬曆二十九年 辛丑六月 初十日 生 乙未二月二十一日卒 壽五十五

墓在二道三公山

配崔氏

本海州名者斤德

壬寅二月二十六日生 辛未十二月初五日卒

壽八十

墓上全

子俊龜

見下

一子 俊龜

仁祖二十三年乙酉七月初六日生
設牧初移居黃二面場東上里

戊寅正月初三日卒

壽五十四

墓在花源蛇洞里後笏青山北麓坤坐

配崔氏

本錦州鄉務安名豐玉

乙未十一月三十日生

己丑七月二十四日卒

壽五十五

墓附左合墳

生六男二女

長子 乘 雲

次子 乘 載

次子 乘 達

次子 乘 逸

次子 乘 勳 見下

次子 乘 弼 見下

乘雲 酉十月十八日生

二子 乘勳

字 德 雲
肅宗十九年癸酉六月二十二日生

二日生

乙巳五月二十五日卒

墓在蛇洞

配金氏

本光山鄉羅州達利島

己巳三月初五日生

癸酉八月初七日卒

墓在山地洞西崗

子 柱 下

二子 乘弼

字 大 元

肅宗二十二年丙子五月初一日寅時生

丙子七月初四日卒

三子 得聖

兒名 柱
字 光 會

戊寅八月十五日申時生

癸 二月初八日卒

墓在寺洞西崗乙向

配金氏

本金海己辰

己酉正月初五日生

庚午四月初四日卒

墓在長興有峙月川里

南麓子慶郁

父 麗 起

子 慶 郁

三子 應聖

字 誠 基

肅宗四十六年庚子五月初四日亥時生

丁未十月二十一日卒

四子 慶郁

字 化 鍊

丁亥十月十四日丑時生

丁亥十二月十三日戌時卒

墓在寺洞西崗

配崔氏

本全州鄉右水營子斤阿只

戊子五月初八日生

墓

父 昌 億

祖 爾 泰

曾祖 海 建

外祖 丁斗樞

五子 就 炯

六子 永 壽

七子 八 運

八子 必 聖

四子 繼賢

字 敬 斤

英宗十六年庚申六月二十五日生

壬戌六月二十九日卒

五子 就明

字 光 實

甲申十一月二十五日生

己巳二月初三日卒

墓寺洞良坐

今般吾花源千氏家承再刊에際하야所感의一端을述하노라

去今二十八年前己丑初刊時에는芝村公께서勞心焦思하시와積年蒐集成編하야기에此을標本삼고續後修正하야無難히發刊하야스나今次再刊에잇서서推進委員으로三從弟吉茸再堂姪在石三從孫乙鳳長질東燮諸氏로組織해스나吾族이生活上散在四方하야蒐集不如意이러니幸히再堂質在石三從孫乙鳳氏가老軀을不顧하고京鄉各地을千辛萬苦하며一一訪問하야蒐集成編하야今日에再刊을맞치게된이我門之慶幸으로思하오니將來後孫들은此을標本삼아三十年을一期로定하고世譜修正을期必하야萬世遺傳하기을衷心으로切望하노라

檀紀 四千二百九年 丙辰 六月 日

不肖孫 仲淳 謹識